



2015년 12월 1주차

■ 연구원 소식

○ 진안지역자활센터 인문학 강좌

- 날 짜 : 2015년 12월 4일(金) 15시 ~ 17시
- 장 소 :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
- 내 용 : 연구원과 진안지역자활센터는 11월~12월에 다섯 차례의 인문학강좌를 진행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두 번째로 송정현 연구간사가 진안지역자활센터 나눔푸드 2층 교육장에서 “남북의 분단과 전쟁(민중운동사)의 의의”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은 날씨였음에도 힘들게 참석하셔서 경청해 주시는 모습은 앞으로 남은 교육을 어떻게 진행할지 다시금 생각을 여미게 해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2015년 10차 운영위원회의 실시

- 날 짜 : 12월 4일 금요일 오후 6시 / 장소 : 한국고전문학연구원 회의실
- 참석 및 위임 : 홍성덕, 김건우, 한명수, 최우영, 하태진, 홍성덕, 이규수(위임)
- 보 고 : 회계보고, 9차 운영위원회의 이후 업무보고, GHS 업무보고
- 안 건 : 1. 2015년 3차 부산답사 진행 건
2. 2015년 사업평가 및 2016년 사업계획과 관련한 심의, 일정 수립 건



■ 연구원 회원 소식

○ 문형국 초대 이사장, 정경명 평의원 방문

: 지난 12월 4일, 문형국 초대 이사장과 정경명 평의원이 연구원을 방문하여 연구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개원 10년을 맞이하는 2016년에 더 큰 역할로 연구원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 송정현 연구간사 생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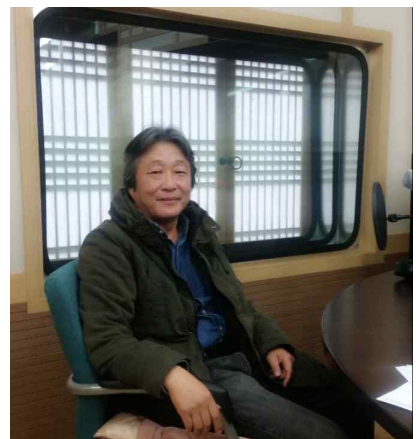
: 지난 12월 4일 송정현 연구간사의 생일이었습니다.



○ 유영봉 회원 라디오 출연

: 국악방송 "손혜원의 한류만세"(편성시간 : 월~금, 11시~12시) 의 수요일

<문화톡톡> 이라는 코너에 연구원 유영봉 회원이 출연하였습니다.



■ 금주 연구원 주요일정

- 12월 07일(월) : 주간회의
- 12월 10일(목) : 진안지역자활센터 인문학강좌

■ 역사속의 오늘

○ 87년 전주역 - 1987. 12. 10

: 87년 6월 항쟁이 끝나고 남은 것은 '독재타도'였다. 야당의 두 지도자가 단일화에 실패하자 민주정의당 노태우 후보는 수십 년 한국을 지배해 온 파시스트 세력을 결집하고 온갖 공작 정치를 가동하여 그들의 재집권 프로젝트를 실현해 나가고 있었다.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역주의였다.

김영삼 후보의 광주 유세 때 무대를 뒤흔들면서 김영삼 사퇴를 부르짖어 끝내 유세를 포기하게 만든 청년들 가운데에는 순수하게 김대중 후보를 애타게 지지하던 '민주 학생'들도 있었지만 민정당이나 안전기획부에 고용된 이들도 끼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김영삼 후보는 끝내 광주 유세를 하지 못했지만 노태우 후보는 그때 처음 본 투명방패로 날아오는 돌을 막으며 연설을 진행했다. 방패에 부딪치는 돌들과 그 안에서 의연하게(?) 연설하는 노태우 후보의 모습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사람들의 머리를 헝클어 놓았다. 80년대의 어둠을 넘어, 그 죽음의 시대를 넘어 군사 독재정권과 싸워 온 이들에게야 그건 당연한 응징이었다. 광주 5적의 하나인 노태우가 대통령 후보에 올라 그것도 광주에 와서는 표를 주십사 연설하는 자체가 허파가 뒤집힐 일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노태우의 수난(?)이 그렇게 응당한 업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각설하고 1987년 12월 10일은 노태우 후보가 전북 군산과 전주에 오는 날이었다. 전북 민주화운동 세력들 사이에는 "동학 농민의 성지 전북에는 노태우가 발도 못붙이게 하자."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그래서 군산이건 전주건 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전의를 다지고 있었는데 그 사령탑이라 할 전북대학교 총학생회에 뜻밖의 인물이 나타난다. 전북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기획한 '전북 민주화운동사'의 내용에 따르면 그는 '민정당 청년 조직 책임자'였다. 그는 총학생회장 이하 간부들을 만나 "우리 쪽 대응이 이 정도이니 경거망동 말라."면서 으름장을 놓았다고 한다. 으름장만 놓은 게 아니라 유세 현장의 경비 배치도 등까지 '소상하게' 알려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단지 이 정도니까 감히 어쩔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였을까. 제발 와서 깽판 쳐 달라는 미끼였을까.

12월 10일이 왔다. 수백명의 학생들이 모였고 6월 항쟁 내내 '전리품'으로 모아 왔던 최루가스 분말이 분배됐고 철근 끝에는 폭죽이 묶였다. '시청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노태우 후보의 유세는 3시였다. 연단이 설치되고 연예인들이 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학생들은 인파 사이로 최루가스를 슬슬 뿌리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 오후 1시 50분께 전북대 의대생이 던진 사과탄을 시작으로 학생들은 거세게 연단을 향하여 돌진했고 경찰은 죽을 힘을 다해 막았다. 경찰은 물론 민정당 청년 당원들도 가세했지만 진압은커녕 최후의 마지노선 사수에 전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노태우 후보는 그 상황에서도 '의연함'을 드러내는 언론 플레이를 한다. "폭력에는 절대 굽힐 수 없다는 노 후보의 의지에 따라 오후3시 50분, 4시 30분, 5시 30분 등 세 차례에 걸쳐 유세장 진입을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그날 노태우 후보 전주 유세는 무산됐다.

지금과 달리 당시 전주역은 허허벌판이었다. 양측의 공방을 방송사의 카메라는 전북대 병원 인근 고층 옥상에서 계속 촬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검은 연기와 최루탄, 돌맹이가 난무하는 전주역 광장이 도배되었다.

전날 광주에서 총돌 끝에 유세가 강행된 것에 비춰 봤을 때, 그 시위에 참가한 이들은 나름의 금지(?)를 가져 불만한 사건이었다. 당시의 투쟁 주체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주역 유세 저지 투쟁이 정권측이 지역주의를 부추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함정을 판, 기획 작품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선택은 그것뿐이었다. 열심히 싸우는 길 밖에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그날 그 현장에서 군부독재에 대한 투쟁의 신심으로 똘똘 뭉쳐 공방을 벌였던 시민과 학생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지만 선택지의 한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노태우의 전주 유세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들이 잃어버린 것은 너무나도 많았다.

이날 유세를 기점으로 유권자 수로 영남과 대비가 안되는 호남은 고립무원되고 그 해 선거 전날 재갈을 물고 입국한 KAL기 폭파범 김현희는 6월 항쟁의 고트머리를 장식하는 선언적 사진으로 남는다.

"정권측의 함정이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 밖에 없었다. 그 입장에 십분 이해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을까?

그 시기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이 지금 다양한 선택지를 만든 것이겠지만 아쉬움을 감추기 어려운 12월 10일 전주역의 공방전이 1987년 벌어졌다.

○ 북국집의 양복쟁이들 - 1992. 12. 11

: 뜻한 바는 아니지만 이번 주 역사속의 오늘은 5년 주기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들이 연속된다.

복 요리를 매우 즐기는 일본과 가까워서인지 부산에는 유명한 북국집들이 많다.

깊은 속 쓰림을 달래주는 해장국으로 전주에 콩나물국이 있다면 부산에는 북국이 있다. 1992년 12월 11일 아침, 초원북집이라는 부산에서 나름 유명한 북국집에 모여든 8명의 신사들도 그 맛을 익히 알았을 것이다. 다른 손님들과 사뭇 다른 대우를 받았을 그 8명은 부산에서 상당한 감투들을 쓴 사람들이었다. 좌장은 전 법무부장관인 김기춘이었고, 김영환 부산직할시장, 박일용 부산지방경찰청장, 이규삼 안기부 부산지부장, 우명수 부산시 교육감, 정경식 부산지방검찰청장, 박남수 부산상공회의소 소장이 그들의 직함이었다.

그 쟁쟁한 직함들이 단지 해장을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심은 며칠 뒤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있었다. 기관장들이 모여서 선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겠지만, 그들의 대화는 좀 사정이 달랐다. 주도자는 유명한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서 당시 "미스터 법질서" 라는 별명을 지녔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올 2월까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이었다.

미스터 법질서는 "당신들이야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을) 해도 괜찮지 뭐..., 우리 검찰에서도 양해할 것이고, 아마 경찰청장도 양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대의 민주주의제를 몸통으로 하고 선거로 대통령을 뽑는 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지낸 자가 지방의 행정 책임자와 경찰 총수와 검찰 수장에게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라고 떠들어댄 것이다. 심지어 그는 이번엔 "(YS가 떨어지면) 다들 영도 다리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 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맞장구는 부산경찰청장 박일룡의 입에서 나왔다. "양해라뇨. 제가 더 떠듭니다." 관권 개입을 '양해'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독려' 하고 있다는 선언이었다.

북집의 은밀한 내실에서 그들은 흥금을 터놓고 추악한 대화를 나눴다. 그러나 그들의 이 회동 내용은 당시 대통령에 출마하여 여당을 위협하던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 이끄는 통일국민당 당원들이 설치한 도청기가 들고 있었다. 그 적나라한 대화는 녹취록이 되어 세상에 폭탄처럼 투하됐다. 선거 자체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또한 '초원북집'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북집으로 부상하게 된다.

한 나라의 전직 법무부 장관이 지방의 기관장들에게 선거 개입을 사주하고 기관장들은 그에 동조하는 내용의 녹취록의 파도는 너울처럼 대한민국을 덮쳤다.

초원 복국집 내실에서 벌어진 고위 공무원들의 관권선거 모의는 엄청난 범죄적 사실이며 공화국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지만 언론은 주요 프레임을 '도청'으로 몰아갔고 그 내용상 비교가 안 되는 관권선거의 음모자들은 어이없게도 도청의 '피해자인 양' 책임을 추궁을 모면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건이 불거진 부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는 그렇게 가해자에 동조했다. "강간한 건 잘못됐지만 옷차림이 원인이었다"를 부르짖는 성폭력 가해자와 다를 바 없는 논리에 자신의 표를 실었다. 초원복국집에 둘러앉았던 이들은 그 뒤로도 승승장구했고 그 대화들은 인생의 오점은 커녕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의식 만큼이라는 말이 딱 맞는 형국이었다.

이날 이후 십여 년이 지난 후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개입을 이유로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을 때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이 바로 초원복국집의 좌장 김기춘이었다.

"임기가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과 연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겁나게 한 것으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고 준엄하게 얘기하던 그의 얼굴을 보며

"다른 사람이 되면 다 영도다리에 떨어져 죽자."고 큰소리치고 "당신들이 노골적으로 해야지. 지역감정 좀 일어나야 돼."라고 막말하던 그 입에서 나온 소리가 떠오를 때 비극의 뫼비우스 띠같은 절망 앞에 포복했던 기억이 선연하다.

그 추잡하고 절망적인 기억의 편린이 사라질만 할 때 그는 일흔 넷의 나이로 박근혜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하였다.

'왕실장, 기춘대원군'으로 불리며 정권을 쥐락펴락한 그는 대통령에게 "정말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라는 찬사를 듣는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 이후 조문 정국에 다시 언론에 등장하여 "나이 늙은 사람하고 젊은 사람이 노장청이 잘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며 나라의 원로로 대접받는다.

우리 민주주의의 성숙도가 1992년 12월 부산 초원복국집으로 다시 후퇴한 것인가? 씁쓸함을 감출 길이 없다.